

# 2030년을 향해 평화와 공생의 큰 조류를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참가학회) 회장

2013년 1월 26일

‘자비’ ‘지혜’ ‘용기’의 파동을 넓혀 생명존엄의 지구사회 건설

비극의 유전을 끊는 도전을!

새천년 개발목표의 일부 달성

유엔은 창설 이래, 올해로 채택된 지 65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유엔총회나 세계회의에서 채택한 환경과 개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분쟁 및 구조적 폭력에 대한 ‘평화의 문화’ 등의 결의에서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하는 이념과 지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기치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인간의 안전보장’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는데 이러한 이념을 설정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세계에서 무엇이 경시되고 있는지’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어떠한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여 주의(注意)를 환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엔의 중점과제인 새천년 개발목표<sup>1</sup> 중에서 ‘세계에서 극심한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는 항목이 예정(2015년)보다 앞당겨 달성되었습니다. ‘안전한 식수를 지속적으로 얻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등의 목표도 이루어졌으며, ‘초등교육에서 남녀격차 해소’도 그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진행으로는 달성이 불안한 항목도 적지 않고 또 비록 모든 항목을 달성한다 해도 여

---

<sup>1</sup> 새천년 개발목표

2000년 9월에 채택한 유엔새천년선언 등을 토대로 8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정리한 국제발표를 일컫는다. 2012년까지 극심한 빈곤과 식수 그리고 빈민가 거주자의 생활에 관해서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영유아 사망률 감소와 임산부의 건강개선 등 그 밖의 모든 항목을 2015년까지 달성하려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전혀 많은 사람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과 존엄을 위협당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책을 서둘러야 함은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기한을 명확히 한 다음에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면 세계는 착실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지난해 6월, ‘리우+20’(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이 새롭게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제정하기로 정하고, 지난달에는 이를 검토하고자 작업부회를 설립했습니다.

새로운 목표 연도로 예정한 2030년까지 무엇을 이루고 어떤 세계를 구축할 것인지, 지금이 바로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지구사회의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 문호 괴테가 척결한 문명의 병리

“지금은 모든 것이 악마적 속도로, 사고(思考)도 행동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너무 빨리 달려간다.”

“젊은이들은 매우 어렸을 때부터 재촉당하고, 시대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간다. 풍요로움과 빠름을 세상이 칭찬하고 누구나 추구하는 것이 되었다.”

이 예리한 문명비평은 현대 사상가가 아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걸쳐 활약한 문호 괴테가 한 말입니다.

저는 현재 바이마르 괴테협회 고문인 만프레트 오스텐 박사와 괴테의 사상과 인생을 주제로 연재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텐 박사는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이 문명의 병리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빨리 날아오르는 ‘마법의 외투’(이동수단)와 ‘빠른 검’(무기) 그리고 손쉽게 만들어낸 ‘지폐’(돈)를 구사해 계속해서 욕망을 채우면서도 결국에는 파멸하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에게 제공한 이런 것들은 “형태와 호칭은 21세기 초두와 다르지만, 내용으로는 똑같은 것을 가리키며 앞에서 말한 악마적 속도의 도구”라고 자리매김하고 “현대인은 과연 파우스트 박사를 동시대 인물로 인정하는 능력을 지녔을까?” 하고 외쳤는데,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사회와 무관한 이야기라고 받아넘길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국을 지키고자 인류를 전멸(全滅)시킬지도 모를 핵무기도 그러하고, 격차가 확대되거나 약자를 냉정하게 잘라버리는 경쟁지상주의적인 사회도 그러하고,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제동이 걸리지 않는 환경파괴도 그러하고, 투기자본에 휘둘러 가격이 등귀(騰貴)하는 식량위기도 그러합니다.

그 결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아주 간단히 유린당하는 비극이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메피스토펠레스의 힘을 빌리지 않고 말이지요. 괴테가 척결한 병리는 현대에 와서 정말로 극에 달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천년 개발목표의 취지는 ‘세계에서 가능한 한 비참을 없애는 일’인데, 이 문명의 병리에 진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사태가 일시적으로 좋아진다 해도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 상황이 다시 나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형극을 눈앞에 두고 2030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착수하면 좋을까요.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겠지 하는 안이한 걸음걸이로는 안 된다. 그 한걸음 한걸음이 목적지이고, 그 한 걸음이 한 걸음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괴테의 말이 잘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봉책으로 사태를 개선하려 하지 말고, 갖은 위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살아갈 희망’과 ‘존엄 있는 삶’을 되찾는 데 필요한 양식으로서 하나 또 하나 결실을 거두면서 시대조류의 방향을 파괴에서 건설로, 대립에서 공존으로, 분단에서 연대로 돌리고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목표를 제정하는 데도 ‘사회에서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물으면서 ‘평화와 공생의 지구사회’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을 확실하게 이끌어줄 정신적 기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기축으로 ‘생명존엄’을 제시하겠습니다.

‘평화와 공생의 지구사회’를 건물에 비유한다면, ‘인권’이나 ‘인간의 안전보장’과 같은 이념은 건물을 형성하는 기둥이고, ‘생명존엄’은 그 기둥을 지탱하는 모든 토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토대가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는 한, 위기나 시련에 부딪혔을 때 그 기둥은 불안정해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사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춧돌은 건물의 강도를 담보할 만큼 충분히 무거워야 하고, 한 사람 한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대지에 뿌리를 내려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존엄’을 기축으로 한 문명의 미래상을 부각하기 위해, 사회에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정신성으로서 세가지 지표를 제기합니다.

### 고뇌 함께 나누고 마음을 쓰는 속에 자타 함께 행복을 여는 길이

### 생로병사의 괴로움도 인생을 장엄하게 하는 양식으로

### 아프리카의 세기를 향해 강력한 연대를

첫째 지표는 ‘타자(他者)와 고락을 함께하려는 의지’입니다.

돌이켜 보면 ‘생명존엄’은 약 40년 전에 역사학자 아놀드 J. 토인비 박사와 21세기의 세계를 전망하며 대담할 때, 결말 부분에서 논한 주제였습니다.

그 대담에서 토인비 박사가 ‘존엄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듯이, 단적으로 말하면 ‘생명존엄’은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이라는 대체불가능성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박사는 ‘다른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의 존엄까지도 잃게 된다.’고 지적했는데, ‘생명존엄’을 인간 사이의 관계성에서 보는 관점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많은 사람의 존엄을 위협하는 빈곤문제는 국제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첫머리에서 언급한 대로 새천년 개발목표 중 몇 항목은 이미 이루었으나, 비참한 상황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초점이었으므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2015년을 시점으로 약 10억명이 극심한 빈곤으로 고통받고 6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빈곤이 줄어드는 속도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고, 특히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뜻대로 개선되지 않은데다 똑같이 극심한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반으로 줄이지 못한 남아시아와 중남미와 비교해도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어 걱정입니다.

6월에는 요코하마에서 제5회 아프리카개발회의를 엽니다. 주요 주제 중 하나로 ‘포용적이고 강인한 사회’를 내걸었는데,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빛내고, 평화와 공생을 위한 가치창조의 조류가 아프리카에서 세계로 거둬 넓혀지는 ‘아프리카의 세기’를 건설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국제적인 연대로 다져지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바랍니다.

## 격차사회의 폐해

한편 많은 사람의 존엄을 위협하는 빈곤문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 사이에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격차사회’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연구하는 리처드 윌킨슨 씨와 케이트 피켓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격차가 불러온 인간관계의 악화가 사람들을 더욱 괴롭게 만들고, 그 악영향이 돌고 돌아 사회 전체를 해친다고 말하고, 격차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건강이나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데도 “격차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서로 상관하지 않게 되고, 인간관계가 소원해져 자신의 힘으로 처세를 잘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뢰관계가 약해진다.” “격차는 사회를 여러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기능부전에 빠뜨리는 것”이고 “빈곤층뿐 아니라 모든 소득층이 잘 화합하지 못하는 상태를 불러오고 만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것만으로도 매사에 삶이 힘겨워집니다. 거기에 치명타를 가해서 부조리성을 증폭 시킴으로써 자신이 업신여김당하거나 소외당해 설 자리나 삶의 보람을 잃고, 사회와 단절되는 것이 아

닐까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번민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향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주위의 시선이나 냉담한 반응이 얼마나 존엄에 상처를 입히고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 몇 해 사이에 빈곤문제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의 대책과 더불어 타자와의 관계성이나 삶의 보람을 회복시켜 ‘사회적 포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이유도 그런 관점에 근거한 것입니다.

## 늙고 병든 사람 꺼리고 싫어하는 마음

시대상황은 다르지만, 불법(佛法)이 성립할 때 그 출발점에 가로놓였던 문제도 ‘여러 괴로움에 부닥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은가.’ 하는 주제였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보장받은 석존이 젊은 시절에 출가를 결심하기까지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문유관(四門遊觀)<sup>2</sup>의 전승(傳承)에 함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석존의 본마음은 생로병사를 인생에 수반하는 근본적인 고뇌로 여기고 무상(無常)하다고 비관하지 않았습다.

훗날 석존은 ‘어리석은 범부(凡夫)는 자신이 늙고 또 늙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도, 타인이 노쇠해지는 모습을 보면, 생각에 잠겨 고민하며 부끄러워하고 혐오한다. 자신이 늙는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사람들이 병이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이와 마찬가지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그때의 심경을 회상합니다.

어디까지나 석존은 마치 자신은 늙고 병들지 않을 것처럼, 늙고 병든 사람들을 기피해야 할 존재로 차별하는 ‘교만한 마음’을 주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석존은 주위에서 포기한 고령자나 홀로 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일화(逸話)가 있습니다.

---

<sup>2</sup> 사문유관(四門遊觀)

석존이 왕자로 있을 무렵 밖으로 놀러 나갔다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인간에게는 생로병사라는 사고(四苦)가 있음을 알게 된 일을 말한다. ‘수행본기경’ 하권에는 석존이 왕궁의 동문, 남문, 서문을 나갔을 때 늙고 병들어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마지막으로 북문을 나갔을 때는 출가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출가를 바라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씌어 있다.

“한 수도승(修道僧)이 병으로 앓아누워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석존이 ‘그대는 왜 괴로워하는가. 그대는 왜 홀로 있는가.’ 하고 묻자, ‘저는 천성이 게을러서 타인을 간병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앓아도 간병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래서 석존은 ‘선남자(善男子)여, 내가 지금 그대를 돌보겠다.’ 하고 더러워진 깔개를 바꾸고 게다가 몸도 손수 씻겨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리고 석존은 ‘열심히 수행하시오.’ 하고 말하니, 수도승은 심신이 함께 기쁨에 넘쳤다.”

미처 생각지도 못한 헌신적인 간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석존이 다른 건강한 제자들에게 하는 것과 다른 말을 자신에게도 해주었다는 사실이, 꺼질 듯한 그의 생명에 ‘존엄의 등불’을 틀림없이 다시 타오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 자기책임론의 교만을 깨부순 석존

이 일화를 다른 경전에 설해진 전승과 대조하면, 석존의 또 다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석존은 수도승을 간병한 뒤, 제자들을 모아 놓고 하나하나 물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전부터 수도승이 중병으로 괴로워한다는 사실도, 어떤 병인지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한 사람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는가.

제자들의 답변은 수도승이 병상에 누워 말한 그대로 ‘그가 다른 수도승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간병하지 않았다’는 말이었다.”

이 답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평소 행동이 나쁘니까’ ‘본인의 노력이 부족하니까’ 하는 자기책임론에 통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도승에게는 운명론을 감수하는 ‘체념’이 되어 마음을 쇠약하게 만들었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방관을 정당화하는 ‘교만’이 되어 마음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석존은 제자들의 흐린 마음을 맑게 하려고 “나를 섬기려는 자는 병자를 간호하라.”며 반성을 촉구하듯 설했습니다.

즉 불도(佛道) 수행은 다름이 아니라 눈앞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 일처럼 정성을 다해 고락을 함께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존엄의 빛을 되찾은 사람은 괴로움에 빠진 사람뿐 아니라, 그 괴로움을 함께하려는 사람도 포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생명은 존엄하다고 하지만 저절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호관계에서 타자의 생명이 참으로 ‘둘도 없이 소중한 것’임이 명확해지고, 그 생명을 어디까지나 지키고 돕겠다는 마음이 자신의 생명도 장

엄하게 합니다.

또 석존이 앞에서 말한 ‘나(부처)’와 ‘병자’를 하나로 보며 가르치고자 한 점은 병든 몸이든 늙은 몸이든 인간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하면 타인이 병들고 늙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인생에서 패배한 사람이라고 보면 잘못된 뿐 아니라 서로의 존엄을 멸시하는 태도가 됩니다.

석존의 사상 중에서 ‘법화경(法華經)’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은 ‘법화경’에 생명존엄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보탑(寶塔)의 모습에서 “사면(四面)이란 생로병사이며 사상(四相)을 가지고 우리의 일신(一身)의 탑을 장엄(莊嚴)하느니라.”(어서 740쪽)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보탑을 형성하는 네 면은 생로병사에 따르는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네 개의 상<相>)으로 더욱더 눈부시게 빛납니다. 그러므로 언뜻 보기에 불이익으로 보이는 노화나 병 그리고 죽음도 인생을 장엄하게 하는 양식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존엄이라고 해도, 현실의 여러 고뇌를 떠나서는 본디의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佛法)에서는 고뇌를 함께 나누고 어디까지나 정성을 다해 ‘자타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여는 삶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가학회는 초창기부터 ‘가난뱅이와 병자들의 모임’이라고 때로는 아유를 당하면서도 갖가지 괴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삶을 최대의 자랑으로 여기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더구나 요즈음 재해와 경제위기로 상징되는 ‘갑자기 덮치는 곤궁의 위기’가 많은 사람에게서 소중한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가 감당하기 힘든 괴로움을 불러오는 사태가 각지에서 잇따라, 고립을 미리 막자는 요청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3년 전의 아이티대지진이나 2년 전의 동일본대지진과 같이 막대한 재해를 당한 지역에서는 아직도 복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재해를 당한 분들의 ‘마음을 복구’하고 ‘인생을 복구’하는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를 당한 분들의 괴로움을 잊지 않고, 사회 전체가 온 힘을 다해 재해지 재건을 지원하고 ‘삶의 희망’을 함께 키우는 유대를 이중 삼중으로 굳게 맺는 일이 중요합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웃음을 되찾을 때까지 철저히 계속 격려하고 서로 고락을 나누며 어디까지나 함께 의지하는, 이러한 ‘더불어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유대’가 있는 한,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또다시 다른 시련이 찾아온다 해도 부조리(不條理)의 어둠을 쫓아버릴 햇빛이 반드시 비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잃지 않고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을 지키며 자타 함께 존엄을 빛내는’ 행동을 끈질기게 불러일으키는 일이 격차사회를 극복하고 더불어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포용’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권교육영화에 담은 메시지

둘째 지표는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난해 9월, 우리 SGI가 인권교육협회(HREA),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UNHCHR)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존엄을 향한 길 - 인권교육의 힘’을 완성했습니다.

이 인권교육영화는 2011년 12월에 채택한 ‘인권교육과 훈련에 관한 유엔선언’<sup>3</sup>의 내용과 이념을 일반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려는 것으로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세 지역에서 있었던 인권교육을 실천하는 모습을 소개하는데 각각의 사례가 부딪친 과제는 다르지만 거기에 담긴 메시지의 핵심은 ‘사회는 반드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한사람 한사람의 내적인 변혁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SGI는 유엔 비정부기구(NGO)로 활동하며 인권교육을 추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바탕에는 불법사상에 근거를 둔 신념이 흐르고 있습니다.

석존은 “태생을 추궁하지 마라. 행동을 추궁하라.”고 하며 과거세의 죄업으로 현세의 처지가 결정된다는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비판하는 한편 “불은 실로 온갖 장작에서 일어난다.”는 비유를 통해 어떤 사람에게도 존귀한 생명이 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근원적으로 평등하며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운명론적인 세계관은 차별하는 쪽에 양심의 가책은커녕 의문을 품을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인권경시에 따른 비극의 횡행을 허용하는 온상이 됩니다.

또 차별을 당하는 쪽에도 ‘자신이 본디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자각이 싹트지 못하게 싹을 잘라버려서 ‘아무리 노력해도 헛되고 의미가 없다.’고 체념하는 원인이 됩니다.

---

### <sup>3</sup> 인권교육과 훈련에 관한 유엔선언

유엔이 처음으로 정한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2011년 12월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가가 여러 가지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인권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실현하도록 도모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비롯해 NGO(비정부기구)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가하고 있다.

이런 ‘현재를 엮어매는 과거의 굴레’는 모든 사람 즉 차별당하는 쪽은 말할 나위도 없고, 차별하는 쪽도 ‘생명존엄’의 토대를 좀먹기 때문에 석존은 이를 도저히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존은 “태생을 추궁하지 마라. 행동을 추궁하라.”고 외치며 ‘인(因)’과 ‘과(果)’의 관계는 반드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행위(또는 일념)가 새로운 인이 되어 전혀 다른 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하고, “인간의 존귀함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행위로 추궁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불법에서는 연기(緣起)의 법리(法理)를 설해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며 존재한다는 상의성(相依性)의 연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순간순간 변화하는 ‘인’과 ‘과’가 상의성의 연관으로써 다른 존재에도 갖가지 영향을 미치며 ‘지금 이 순간의 행위’가 자신뿐 아니라 주위나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가져오는 변혁의 연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위대한 역용(力用)은 석존이 “불은 실로 온갖 장작에서 일어난다.”는 도리를 통해 나타내려고 했듯이 어떤 사람에게도 내재(內在)합니다.

## 법화경의 드라마와 비유로 묘사된 모든 사람의 평등성과 무한한 가능성

### 한 사람의 내면적 변혁이 현재와 미래를 희망으로 비춘다

#### 장자공자의 비유와 의리주의 비유

‘모든 사람에게 존귀한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 자신의 생명에 갖추어진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하는 길이 열린다.’는 불법의 생명관은 ‘법화경’에 나오는 탁월한 비유인데, 이것이 석존의 말뿐 아니라 제자들의 말로도 씌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장자공자의 비유’(어릴 적에 실종된 아들과 자산가인 아버지의 이야기)는 수보리 등 성문을 대표하는 제자들이 말했고, ‘의리주의 비유’(가난한 남자와 부유한 친구가 두 번이나 우연히 만나는 이야기)는 교진여(陳如)를 비롯한 아라한(阿羅漢)들이 말했습니다.

앞에 든 비유는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던 사람이 방랑하다 머슴으로 들어간 집에서 많은 보물(아버지 재산)을 보면서도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이야기이고, 뒤에 든 비유는 늘 입고 다니는 옷 속에 보물(친구가 예전에 꿰매 둔 보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힘들게 살던 사나이가 친구와 다시 만나 존귀한 보물이 본디 자신의 손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고(모든 사람의 평등성), 모든 사람이 부처와 같은 심심무량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모든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는 석존의 가르침의 핵심을 접하고 자신의 존엄과 사명을 깨달은 제자들이 넘치는 환희와 결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몸에 일어난 변혁된 모습과 심정을 표현한 비유를 통해 ‘법화경’에 이중으로 묘사된, 자각에서 환희 그리고 결의(행동)로 승화(昇華)하는 생명의 드라마입니다.

우리 SGI가 인권교육을 추진하는 데 ‘임파워먼트’(내발적인 힘의 개화)에서 ‘리더십의 발휘’에 이르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은 석존의 자각이 제자들의 자각으로 연쇄반응 하듯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길은 인간의 생명과 생명이 촉발해야 한 걸음 또 한 걸음 열린다는 불법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자기신뢰의 힘과 희망의 온기

인권교육영화는 젊은 시절에 바라지 않은 결혼을 강요당하고, 남편의 폭력에 괴로워하던 터키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여성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하지만, 오히려 친정 식구들에게도 협박을 당한다. 그러나 여성단체의 보호를 받으며 인권을 배우고 의식을 훈발(薰發)하는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결심을 굳힌다.

그리고 ‘나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다른 여성도 도울 수 있다면 더욱 기쁘겠습니다. 모두의 모범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같은 괴로움을 안고 사는 여성들의 힘이 되겠다는 강한 포부를 지닌다.”

바로 인권교육의 귀중한 실례인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겪으며 살아갈 힘을 되찾은 여성의 웃는 얼굴에서 존엄에 대한 자각이 가져온 ‘자기 신뢰의 힘’과 ‘희망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 ‘희망의 온기’라는 이미지를 더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 철학자인 밀턴 메이어오프 씨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메이어오프 씨는 ‘임파워먼트’와 지향성(志向性)이 같은 타자에게 온 마음을 기울이는 관계를 기반으로 한 돌봄이론을 선구적으로 연구한 인물입니다.

“나의 돌봄을 통해 상대가 성장한다는 희망(Hope)이 있다.” “어느 의미에서는 봄이 올 때 느끼는 희망과 흡사하다.” “이 희망이 지닌 의미는 손꼽아 기다리는 미래에는 충족성이 있지만, 현재에는 충족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은 현재의 풍요로움의 표현이고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매우 생기발랄한 현재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희망이 미래에 대한 약속어음으로서 보류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삶의 충족감’으로 가득 채우는 형태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빈궁하천(貧窮下賤)한 자로 태어나”(어서 958쪽) 하고 말씀하시며 서민출신임을 자랑으로 삼고, 평생 사회의 약폐에 시달리는 민중 편에 선 니치렌대성인은 ‘희망의 온기’를 가져다주는 생명역용의 다이너미

즘을 “마치 물바닥에 있는 돌에 불이 있는 것 같고, 백천 만년 동안 어두운 곳에도 등불을 넣으면 밝아 지듯이”(어서 1403쪽) 하고 설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처지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본디 지닌 존귀함을 자각하고 현실을 바꾸려고 일어서는 순간에 주위를 비추는 희망의 빛이 내 몸에서 힘차게 발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희망이라도 아득히 먼 미래에 실현된다면, 가능성의 씨앗이 싹텄다고 해도 그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신의 기력을 분기시켜 지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자신이 변화한 모습으로 주위에 변혁의 파동을 넓히기는 어렵겠지요.

그렇지 않고 앞에서 말했듯이 ‘봄이 오는 것’과 같은 희망이어야만 날마다 기쁨과 자긍심을 지니고 자신이 지닌 가능성의 씨앗을 소중히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변혁의 파동은 자연히 주위에도 넓혀져서 사회의 토양을 지속적으로 일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미래상은 ‘인권문화’에 한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건설에도 유익한 관점(觀點)을 제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환경제언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데 ‘더 좋은 미래를 지향하면서 현실을 더욱 좋게 바꾼다.’는 반복작업을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각건대 미래의 삶뿐 아니라 현재의 삶도 ‘희망의 온기’로 가득 채우고자 노력해야 제가 첫머리에서 고태의 말을 인용해 전망한, 한걸음 한걸음이 ‘목적지’라는 무거운 짐을 지니고 ‘한 걸음의 가치’를 발하는, 시대를 변혁하고자 하는 도전의 지평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2030년을 향한 장대한 도전의 성패도 이러한 ‘임파워먼트’에서 ‘리더십의 발휘’로 파동을 일으키는 노력을 모든 곳에 얼마나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 글로벌화가 가져온 빛과 그림자

마지막 셋째 지표는 ‘다양성을 서로 기뻐하고 곳곳이 지키는 맹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양한 민족이나 종교에 속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다양성은 단지 존중해야 할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고 서로의 ‘삶의 의미’를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라고 강하게 실감했습니다.

현대세계를 일관하는 글로벌화와 정보화 사회라는 두 조류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비약적으로 늘리고 아울러 의사소통을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수단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두 조류는, 경계를 축으로 한 균질화(均質化)가 각지의 문화적 토양을 침식하는 현

상이나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데 따른 문화적 마찰을 둘러싸고 증오와 배타적인 감정을 소리 높여 부추기는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그로써 본디 다양성의 근원인 차이가 공격의 표적이 되거나 사회를 분리하는 벽으로 변해서 폭력과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사태가 잇따른다는 점이 크게 염려됩니다.

예전에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채택한 ‘폭력에 관한 세비아선언’은 전쟁과 폭력이 “유전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갖추어져 있다.” “본능적으로 발생한다.”는 생각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찬동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는 분쟁과 폭력의 연쇄작용을 끊으려면 아직도 많은 어려운 벽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전쟁과 폭력으로 내몰까요.

석존은 타자의 생명도 자신의 생명처럼 돌도 없이 존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명’(無明, 근원적인 미혹)이 바탕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석존이 살던 고대 인도에서도 물을 확보하려고 부족이 서로 다투거나 국가 사이에 세력다툼이 일어나는 등 폭력적인 충돌이 잦았습니다.

석존은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 보이지 않은 번뇌의 화살이 숨어 있는 것을 보았다.” 하며 문제의 소재를 뚜렷이 밝혔습니다.

즉 근원적인 미혹이 눈에 보이지 않은 화살이 되어 마음을 꿰뚫기 때문에 에고이즘(자기중심주의)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석존은 대처하는 집단이 ‘물이 적은 곳에 있는 물고기’처럼 초조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흐려졌기 때문에 다른 집단이 자신들과 같은 괴로움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사실, 예를 들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다른 나라에 멸망되지 않을까 하고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고 훈계했습니다.

## 증오와 폭력의 연쇄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서로 기뻐하는 세계를

### 대화로 맺는 우정이 바로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는 초석

### 삶의 자세를 180도 바꾼 귀자모신

그러하기에 석존은 불살생(不殺生)을 설할 때에도 “모든 사람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모든 것(생물)에게

생명은 소중하다. 자기 몸이라 생각하고 살생하면 안 된다. 살생하게 해서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재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라 생각하고” 하였듯이, 내성(內省)으로써 타자의 괴로움이나 처지를 생각하는 일을 자신을 다스리는 기반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살생하면 안 된다.”고 말한 다음에 “살생하게 해서 안 된다.”고 이어지듯, 단순하게 자신이 살생을 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대화로 타자의 생명에 내재한 선성(善性)을 훈발해 함께 불살생을 다짐하는 삶의 자세를 촉구한다는 점입니다.

불전에는 많은 어린이의 생명을 빼앗는 악행을 일삼는 귀자모신의 ‘삶의 자세’를 석존이 이 내성과 대화라는 두 가지 회로(回路)로 바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자모신의 악행 때문에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석존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자 석존은 한가지 계책으로 귀자모신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귀자모신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를 숨겼다.

7일 동안 혈안이 되어 찾았지만 막내를 못 찾고 초췌해진 귀자모신은 ‘석존은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매달리는 심정으로 석존을 찾아갔다.

막내가 있는 곳을 알고 싶다고 애원하는 귀자모신에게 석존이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이가 많지 않은가. 그런데 단지 한 명을 잃어버리고 왜 이토록 고뇌하는가. 보통 가정에는 아이가 하나거나 또는 셋이나 다섯밖에 없다. 그대는 그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아왔다.’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지금 겪는 괴로움을 얼마나 많은 다른 부모에게 주었는지를 깨달은 귀자모신은 두 번 다시 악행을 하지 않겠노라고 석존 앞에서 약속하고 나서 막내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뒤 귀자모신은 모든 어린이를 지키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아 ‘법화경’에서는 다른 귀신들과 함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행동하고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니치렌대성인이 “유전문(流轉門)의 때는 악귀이고 환멸문(還滅門)의 때는 선귀이니라.”(어서 778쪽)고 설했듯이, 귀자모신이 모습은 그대로인 채로 삶의 자세를 180도 바꾼 사실입니다. 즉 마음의 중심이 ‘귀신’에서 ‘어머니’의 정체성으로 옮겨져 ‘자기 몸이라 생각’하는 내성의 회로가 열려 다른 어머니들의 괴로움이 비로소 가슴으로 다가왔고, 귀자모신은 ‘자신이 겪은 괴로움을 두 번 다시 누구에게도 겪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집단심리나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다

한 인간에게는 민족이나 종교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자기를 규정하는 요소가 다원적으로 겹쳐져 있습니다.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 박사는 이 '정체성의 다원성'이 현대에서 사람들이 집단심리나 폭력적인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열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센 박사는 어린 시절, 많은 사람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며 깊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 비극을 막고자 연구와 사색을 거듭한 박사는 "비록 암묵적이라고 해도 인간의 정체성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단일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간을 왜소화시킬 뿐 아니라 세계를 일촉즉발의 상태로 만들기 쉽다."고 경고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조화를 바랄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지닌 정체성의 다원성(多元性)에 따른 것이다. 다양한 정체성은 서로 중첩으로 이어져 굳어진 선으로 분단된, 거역할 수 없다고 보이는 날카로운 대립에도 저항한다."

같은 민족이라 해도, 같은 종교를 믿는다 해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직업이나 취미도 다르고 신조나 삶의 자세도 다릅니다. 저마다 천차만별인 것이 세계의 실상(實相)입니다. 민족이나 종교의 차이는 위상(位相)을 달리하면서도 인간과 인간의 일대일 관계에서는 여러 정체성이 때로 교차하고 서로 공명할 가능성이 늘 열려 있습니다.

센 박사가 통찰했듯이 그 가능성에 거역할 수 없는 분단의 벽을 뛰어넘어 우정과 공감의 유대를 맺는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세계의 지성인들과 '문명 간 대화'나 '종교 간 대화'를 해오면서 가족 이야기나 성장 과정, 청춘 시절의 추억 그리고 현재의 길을 가게 된 경위 등을 물으며 지구적 문제들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인류의 미래를 전망하며 폭넓게 이야기해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족과 종교 차원에는 묻히기 쉬운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를 수 없는 인생의 풍요로움'과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한 신념'을 부각시키면서 상대방하고만 나눌 수 있는 생명과 생명의 교향악을 '대화'로 연주하며 진정으로 인간적인 세상을 만드는 길을 찾아내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향악에서는 자신과 타자가 다름을 확연히 보여주는 민족이나 종교라는 차이조차도 '가장 좋은 자기'를 서로 나타내는 돌도 없이 소중한 선율이 되어 나타납니다.

## 민족이나 종교에 따른 사회분단 막는다

이 점에 관해 센 박사의 문제의식과도 상통하는 '인간의 다원성'내가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를 수 없는 인생의 풍요로움'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고자 한 인간의 무한한 다양성을 자기 철학의 주축으로

삼은 여성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인상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사에 아무리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사가 아무리 깊게 우리를 감동시키고 자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동료와 세상사를 토론할 수 있을 경우에만 세상사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것이 된다.”

아렌트가 여기에 나오는 ‘동료’의 의미를 동포애가 아니라 우정 그것도 진리에 대한 견해가 다른 인간 사이의 우정으로 논하였듯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세계는 대화로 인간성을 띠며, 우정이 있기 때문에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도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빛을 더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이 우정이야말로 다양성의 원천인 차이가 ‘배타(排他)의 기호’로 변해 사회를 분단하는 것을 막는 방파제가 되고, 증오와 폭력이 소용돌이치는 ‘전쟁의 문화’라는 격류에 타자를 향한 공감과 동고(同苦)의 마음이 떠밀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간이 어디까지나 지켜내야 할 혼의 문장(紋章)이 아닐까요.

앞에서 언급한 세비야선언이 하나의 연원이 되어 유엔이 추진해온 ‘평화의 문화’ 구축은 이러한 ‘전쟁의 문화’를 탈피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SGI는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의 국제 10년’(2001년~2010년)의 기간 중은 물론이고 현재도 전시활동을 비롯해 의식계발과 대화를 민중 차원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문화’를 지구 모든 곳에 정착시키려면 끈질긴 인내로 증오와 대립의 뿌리를 하나하나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같은 인간인 이상, ‘자기 몸이라 생각하고’ 타자의 괴로움에 마음을 쓰는 ‘내성(內省)’이라 부르는 마음의 소리굽쇠가 있고,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놓을 수 있는 ‘대화’라는 이름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황무지도 일굴 수 있는 ‘우정’이라는 이름의 깡이가 있고 가래가 있습니다.

불전에는 “희(喜)란 자타 공히 기뻐하는 것이니라.”(어서 761쪽)고 써어 있는데, ‘평화의 문화’라는 비옥한 들을 넓히는 우정은 같은 세계에 사는 인간으로서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어도 서로의 존엄한 삶을 곳곳이 지키는 맹세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 21세기에 종교가 해야 할 역할

이상으로 ‘생명존엄’에 바탕을 둔 문명을 구축하고자 세가지 지표라고 생각하는 점을 말했습니다.

제가 컬럼비아대학교 티처스칼리지에서 강연하면서 제시한 지구시민의 요건에 이 세가지 지표를 비추어 보면 ①타자의 괴로움에 다가가는 ‘자비’, ②생명의 평등성과 가능성을 깊이 인식하는 ‘지혜’, ③어떤 차이도 서로의 인간성을 훈발하는 양식으로 삼는 ‘용기’라는 생명의 역용(力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역용이 모든 사람에게 내재한다는 점에 눈을 돌리는 일에서 ‘평화와 공생의 지구사회’를 건설하는 도전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21세기에 종교가 완수해야 할 사회적 사명도 이러한 생명의 역용을 풍성하게 꽃피우는 후원자 역할을 다하며 ‘생명존엄’이라는 숨결을 사회에 맥동시키는 민중의 연대를 키우는 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2030년을 향해 ‘평화와 공생의 지구사회 건설’을 추진하면서 특히 궤도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하는 ‘핵무기 금지와 폐기’ ‘인권문화의 건설’, 이 두 가지 과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생명존엄’의 관점에서 논하겠습니다.

첫째 과제는 핵무기 금지와 폐기입니다.

첫머리에서 다룬 ‘파우스트’ 이야기에 비추어보면, 핵무기는 ‘빠른 검’을 현대에 체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빠른 검’을 갖고 싶어 하는 인간의 심리를 괴테가 통찰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문명이 떠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속도’의 관점에서 고찰한 사상가로 폴 비릴리오 씨가 있습니다.

비릴리오 씨는 저서 ‘속도와 정치’에서 “핵무기와 그것이 상정하는 핵무기 체계의 위험성은 폭발할 위험성보다는 지금 존재하는 핵무기가 우리 정신 안에서 내파(內破)할 위험성이 더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구(警句)와 같은 표현으로, 핵무기 폭발에 따른 피해는 너무나 커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비릴리오 씨는 이 글에서 핵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세계가 핵무기 위협으로 뒤덮여 있는 상태가 의미하는 기형성과 또 그 상태가 계속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정신적인 영향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핵무기 보유의 시비(是非)를 한결같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논의하다 자칫 간과해버린 점, 예를 들면 비릴리오 씨가 ‘자살로 향하는 세계’에서 “핵으로 억제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총력전(總力戰)을 지속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전시(戰時)와 평시(平時) 사이의 미묘한 구별을 상실했다.”고 지적한 것처럼, 세계의 실상(實相)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비인도성’의 관점에 기초를 둔 핵무기금지조약을 제정

**핵 의존의 안전보장에서 벗어나 일본은 핵폐기를 위해 행동을!**

**도다 제2대 회장의 ‘원수폭금지선언’**

반세기 전(1957년 9월), 저의 스승 도다 조세이 창가학회 제2대 회장이 동서 냉전 아래 핵개발 경쟁이 격화될 때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하고 핵무기 보유 뒤에 숨어 있는, ‘생명존엄’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음모를 허용하지 말고 철저히 깨부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다 회장은 선언에서 “지금 세계에서는 핵이나 원자폭탄 실험을 금지하라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나는 그 핵무기 속에 숨은 발톱을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해, 핵실험 금지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핵무기 보유를 용인(容認)하는 사상의 뿌리를 단절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는 도시를 모두 파멸하고,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 없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한순간에 빼앗고,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한편 폭발한 뒤에도 후유증 등으로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괴롭힙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인도성(非人道性)이 분명해졌음에도, 여전히 핵무기 보유를 계속 인정하려는 사상의 근거에는 과연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짐작하건대 그것은 ‘총력전’으로 치닫는 심적 태도 즉 전반부에서 고찰한 것을 토대로 표현하면, 적(敵)인 이상 누구든 관계성에는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연관성은 모두 끊을 수밖에 없다는 ‘생명존엄’에 대한 궁극적인 부정이 아닐까요.

거기에는 철학자인 아렌트가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에서 논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세계를 공유하려는 생각’ 따위는 없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기뻐할 가치도 없는 존재’로 간주하는 냉혹함밖에 없다. 말하자면 불법에서 설하는 ‘원품(元品)의 무명(無明)’에서 생기는 사람들의 생명을 근본적으로 경시하고 파괴하려는 충동이 저류에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다 회장은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사상 속에 “숨은 발톱”을 뽑아내고, 세계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만약 어떤 나라든 원수폭을 사용한 자는 승패에 상관없이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자(佛法者)로서 사형을 반대하던 도다 회장이 왜 굳이 극형을 바라는 듯한 표현을 썼을까. 그 까닭은 ‘어떤 나라든, 어떤 이유가 있든 절대로 핵무기 사용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사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민중의 생존권을 인질로 삼으면서까지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핵보유 논리에 더욱 명확하게 쐐기를 박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다 회장은 당시 동서진영으로 갈려 서로 상대방의 핵보유만을 문제 삼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데올로기나 국가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핵무기를 현대문명의 ‘일흉(一凶)’으로 단죄하여 ‘세계민중’의 이름으로 그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재 핵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 방지책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물론 그 방지책이 당장 급하다 할지라도 핵무기를 둘러싼 문제의 본질은 도다 회장이 ‘원수폭금지선언’에서 척결해야 한다고 외쳤던 점에 있음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점에 관해 유엔의 반기문(潘基文) 사무총장도 “어떤 사람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획득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그것은 핵확산과 핵억지력 이론이 전염병처럼 널리 퍼지는 사태를 불러옵니다.” 하고 경고했습니다.

왜 그러한 전염이 발생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와 마주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방지책을 강구해도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앞으로도 새로운 확산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 NPT 재검토회의를 계기로 일어난 움직임

이러한 가운데 2010년에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를 계기로 비인도성에 근거해 핵무기를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NPT 재검토회의에서는 최종문서에 “어떤 식으로든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은 인도적 견지에서 괴멸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가맹국이 어떤 때라도 국제인도법을 포함해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준수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문장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후 2011년 11월, 국제적십자 적신월운동(赤新月運動) 대표자회의에서 핵무기 사용 금지와 완전폐기를 목표로 하는 조약의 교섭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고, 그 밖에 지난해 5월에는 다음 NPT 재검토회의를 위해 연 준비위원회 자리에서 노르웨이와 스위스를 중심으로 16개국이 ‘핵군축의 인도적 측면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은 ‘냉전 종결 후에도 핵으로 인한 전멸 위협이 21세기의 국제적인 안전보장 상황의 일부로 남아 있는 것은 심각한 우려’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 번 다시 이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국가는 핵무기를 비합법화하여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 공동선언을 추가로 약간 조정하여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도 발표했고, 찬동하는 연대는 참관 국가를 포함해 35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공동선언에 근거한 형태로 ‘핵무기 사용의 인도적 영향’을 주제로 한 정부 차원의 국제회의를 엽니다.

이 국제회의의 목적은 과학적인 견지(見地)에서 핵무기 사용이 불러올 즉시적 영향이나 장기적 영향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구호의 어려움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또 9월에는 유엔이 핵무기 완전폐기를 주제로 ‘핵군축에 관한 총회 고위급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저는 지난해 제언에서 대표국과 비정부기구(NGO)를 중심으로 ‘핵무기금지조약을 위한 행동그룹’을 발족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러한 회의에서 공동선언을 채택하기 위한 찬동의 연대를 크게 넓히며 기운을 고조시키고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비인도성의 관점에서 핵무기금지조약을 만드는 절차를 개시하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 북동아시아의 평화를 개척하기 위해

앞으로 중요한 열쇠는 핵보유국을 ‘핵우산’으로 삼아 자국의 안전보장을 의존해온 나라들의 동향입니다.

공동선언에는 ‘핵우산’ 아래 있는 노르웨이와 덴마크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으로서, 비핵무기 지대에 속하는 국가들이나 비보유국 중 핵폐기를 바라는 국가들과 나란히 가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나라는 선언 만들기에다 관여해 왔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같은 ‘핵우산’ 아래 있는 일본도 비인도성 관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핵무기 금지를 바라는 그룹에 가입해 다른 나라들과 힘을 합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핵무기의 위협이 있는 한, 핵무기로 계속 대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피폭국으로서 ‘보유한 국가에 따라 좋은 핵무기가 있다든지 나쁜 핵무기가 있다든지 하는 구별은 전혀 없다.’는 사상을 고취하고, 앞장서서 핵무기금지조약에 선진적인 역할의 일익을 맡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전반부에서 석존이 “자기 몸이라 생각하고 살생하면 안 된다. 살생하게 해서 안 된다.”고 한 말을 언급했습니다.

핵무기와 관련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사람들이 자신들의 피폭체험을 바탕으로 ‘어떤 국가도 핵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어떤 국가도 핵공격을 단행하게 해서 안 된다.’는 두 가지 맹세를 메시지로 발신했듯이, 일본이 핵무기에 따른 참극을 없애는 도전의 최전선에 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보장’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긴장완화’와 ‘핵무기 역할 축소’의 흐름을 스스로 앞장서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동아시아에 ‘비핵무기시대’를 설치하려면 신뢰조성에 노력하며 글로벌적인 핵폐기를 실현할 환경을 만드는 데 공헌해야 합니다.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세계의 군사비 반감 달성을!

#### 2015년 정상회의에서 핵문제 정상회담을 개최

#### 핵보유국 사이에서도 넓혀지는 인식의 변화

바야흐로 핵보유국 사이에서도 실제로 핵무기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3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한 강연에서 “우리 정부의 핵 태세는 냉전시대부터 이어받은 중후하고 장대한 핵무기 체계로는 핵 테러를 포함해 오늘날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문서도 “핵무기 사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극히 생각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모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이라는 전제 아래 억지정책을 견지하는 자세를 고집하고는 있지만 핵무기를 안전보장의 중심에 계속 두어야 한다는 필연성이 현실적으로는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 외에 핵무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다른 관점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후화한 트라이던트 핵미사일 탑재 뱅가드급 핵잠수함을 교체하는 일이 영국에서 재정문제와 관련해 쟁점화된 것처럼, 핵보유에 따르는 막대한 부담의 잘잘못을 묻는 소리가 각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핵무기와 관련한 전 세계의 예산이 연간 105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막대한 자금을 각국의 복지와 교육 그리고 보건예산에 사용하거나 타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에 충당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과 존엄을 지킬 수 있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보유와 유지만으로도 계속 세계에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국제핵전쟁방지지사협회(IPPNW)와 사회적 책임을 위한 의사 모임(PSR)은 지난해 4월 핵전쟁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핵의 기근’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비교적 소규모 핵전력(核戰力)이 대치하는 지역에서 핵전쟁이 일어난 경우라도 중대한 기후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멀리 떨어진 장소에도 영향을 끼쳐 대규모적인 기근이 발생해 10억 명이 고통을 받을 거라고 예측하였습니다.

## SGI의 새로운 전시가 지향하는 것

도다 제2대 회장의 ‘원수폭금지선언’을 원점으로, 핵무기 금지와 폐기를 요구하는 운동에 오랫동안 노력한 SGI는 이러한 여러 관점을 근거로 삼아 핵무기폐기국제캠페인(ICAN)과 공동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연대용기와 희망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물을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히로시마에서 처음 연 이 전시는 정치적·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논하다 보니 막다른 골목에 빠져버린 핵무기 문제를 비인도성은 물론 인간의 안전보장을 비롯한 환경, 경제, 인권, 젠더(사회적으로 형성된 성), 과학 등 다양한 각도에서 재검토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의 목적은 각자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는 주제를 통해 핵무기 문제를 자신과 관계 깊은 과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바라는 연대의 운동 범위를 크게 넓히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반세기 넘도록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까닭은 핵무기의 존재가 ‘생명존엄’을 궁극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이고, 핵무기 금지와 폐기를 실현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대다수의 인명과 지구의 생태계를 희생하는 일도 꺼리지 않는다’는 무도한 사상의 뿌리를 단절하기 위해서지만, 이유는 그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큰 목적은 핵무기 문제라는 프리즘에, 전시 항목으로 앞에서 열거했지만, 환경과 인권 같은 여러 관점에서 빛을 비춤으로써 ‘현대세계에서 무엇이 경시되고 있는지’를 부각시켜서 세계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고, 장래의 세대를 포함해 사람들이 모두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 핵시대를 마침표 찍는 도덕적인 책임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주요주제 중 하나로 군축에 초점을 맞춰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로 ‘세계 전체의 군사비를 반으로 줄일 것(2010년의 군사비를 기준으로 한 비교)’과 ‘핵무기를 폐기하고 비인도성 등에 바탕을 두고 국제법으로 금지한 무기를 모조리 폐기할 것’을 포함하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환경제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대상에 녹색경제와 재생가능 에너지 그리고 재해를 막고 줄일 대책 등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는데, 여기에 군축도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중에서 군비삭감은 현재 NGO인 국제평화국과 정책연구소 두 곳이 중심이 되어 외치고 있는데, SGI도 ‘인도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군축’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그 운동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중심으로, 핵무기와 관련해 다양한 각도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펼쳐 국제여론을 폭넓게 불러일으키고, 이로써 핵무기금지조약의 교섭을 개시해 2015년까지 조약안을 체결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2015년에 G8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유엔과 다른 핵보유국 그리고 비핵지대의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확

대 정상회담”을 여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2015년의 개최국인 독일과 교대하는 형태로 2016년의 담당국가인 일본이 개최국이 되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개최하는 안(案)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저는 이런 정상회담의 방식으로서 2015년 NPT 재검토회의를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열자고 제창했습니다.

그 실현을 간절히 바라지만, 190개국에 이르는 나라가 참가하는 대규모 회의이기에 관례대로 유엔본부에서 열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재검토회의가 끝나고 몇 달 뒤에 열리는 G8 정상회의 장소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형태로, ‘확대 정상회담’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여는 것을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언급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서 강연한 다음과 같은 말은 제 심정과 깊이 공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행동에 나서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도덕적 책임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일찍이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이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2009년의 프라하 연설<sup>4</sup>에서 말한 신념을 다시 한번 표명하며 이렇게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두 딸이 알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빼앗기는 일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한 아버지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말한, 다시 말해 나라와 처지의 차이를 뛰어넘어 한 인간으로서 한 이야기에 모든 정치적인 요소와 안전보장상의 요청을 충분히 근거로 삼았다고 해도 역시 완전히 지울 수 없는 ‘본연의 세계’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맥동한다고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핵무기 보유’라는 오랫동안 단단히 묶여 얽어매어 있던 ‘고르디우스의 매듭’<sup>5</sup>을 풀 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sup>4</sup> 프라하 연설

2009년 4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한 연설을 말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서 그리고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은 나서서 행동해야 하는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표명하며, 각국에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위해 함께 행동하기를 촉구했다. 핵보유국의 리더가 도덕적 책임을 언급한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 <sup>5</sup> 고르디우스의 매듭

기원전 333년, 동방원정 중에, 고대 프리기아의 수도를 점령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고르디우스 왕이 묶은 복잡한 매듭을 푼 사람이 아시아의 지배자가 된다”는 예언을 듣고 그 매듭을 칼로 끊어버렸다. 이 고사에 유래해 ‘복잡한 문제’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핵시대에 사는 한 인간으로서 생각해보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만큼 걸맞은 장소는 없습니다.

2008년에 히로시마에서 연 G8 하원의장 정상회의에 이어서 각국 정상이 참가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실현하여,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조류를 결정짓고 더불어 2030년을 향해 세계적인 군축의 흐름을 일으키는 출발점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 세계인권선언 채택 65주년

둘째 과제는 인권문화의 건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핵무기 금지와 폐기’가 유엔총회에서 처음 채택한 결의안이었던 것처럼, ‘인권’도 역시 처음 유엔을 창설할 때부터 주요 목적으로 삼은 주제였습니다.

유엔헌장 초안에는 인권규정이 극히 한정적이었는데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연 제정회의에서 “평화의 주춧돌을 놓을 생각이라면 성실하고 올바르게 그 기초를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NGO도 명확한 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인 결과, 유엔헌장 제1조에 인권을 유엔의 주요 목적으로 자리매김했을 뿐 아니라 헌장에서 유일하게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6년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48년에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서 제정작업에 참여한 엘리너 루스벨트가 “여러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의 국제적 마그나 카르타(대헌장)가 될 수 있다.”고 예견한 대로, ‘세계인권선언’은 많은 나라의 인권규정에 영향을 주고, 인권에 관한 여러 조약을 성립시킨 이념적인 기반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한편, 인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계속 고무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지 65주년을 맞이한 지금, ‘인권기준의 설정’이나 ‘권리보장과 구제를 위한 제도 정비’에 이어 ‘인권문화 건설’을 국제사회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을 함께 지키는 기풍을 사회 전체에 조성하는 운동으로써 규범을 설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완결할 수 없는 인권보장의 강도를 한사람 한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충분히 단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으로 그것은 제가 ‘생명존엄’을 바탕으로 한 문명을 구축하려면 한사람 한사람이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것을 소중히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이 사회 전체에 맥동해야 한다고 주장한 방향성과 일치하는 도전입니다.

## 인권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대처해야 할 과제

유엔은 2005년에 시작한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프로그램’으로 ‘인권문화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강화하면서 2030년을 향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중심에 앞서 언급한 군축과 함께 인권분야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바네템 필라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지난해 6월, 리우+20에서 이룬 성과를 근거로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가 인권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크게 공감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권문화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2030년까지의 목표로 구체적인 두 가지 항목을 포함하고자 제안합니다.

첫째는 극심한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존엄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나라에서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을 정비하는 일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명문화했는데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조차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 몇 해 사이 세계경제 위기 때문에 고용이나 보건 그리고 교육 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해지고, 유엔은 2009년에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안전망을 정비하고자 했지만, ‘망’으로는 누락되는 사람이 생길 우려가 있어,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게 지원하는 ‘최저선’의 개념을 제기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에게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을 확보하는 일은 꽤 어려운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유엔 기구의 검산(檢算)에서는 최저소득이나 생계의 보장에 관한 기초부분을 정비한다는 조건에서 말하면, 어떠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나라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미 약 30개 도상국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유엔인권이사회도 ‘극심한 빈곤과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지난해 9월에는 그 문제에 대처할 지침의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극심하게 빈곤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권리나 참가 그리고 임파워먼트 등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한편, 빈곤의 감소와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는 포괄적인 계획이나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에게 중점을 두는 정책을 책정하자고 각국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라민은행을 창설한 무하마드 유누스 씨가 “빈곤은 사람들에게서 운명을 통제하려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권을 부정하게 된다.”고 주장했듯이, 빈곤은 존엄의 토대를 쪼먹는 것으로 서둘러 대처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젊은이가 처한 현실이 걱정입니다.

세계 젊은이 가운데 12퍼센트가 실업자이고, 직업이 있다 해도 2억명 이상이 어쩔 수 없이 하루 2달러 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고, 지난해 6월에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를 보면 “즉시 활발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지구사회는 잃어버린 세대라는 비참한 유산에 부닥치게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등을 그릴 수 있을 리 없고, 인권문화를 양성하는 기풍을 뿌리내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을 확보하는 일이 바로 지속가능성과 인권문화를 건설하는 커다란 전제임을 의식하고 힘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킹 박사가 펼친 인권투쟁의 주안점

둘째는 모든 나라에 인권교육과 인권훈련을 보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전반부에서 어떠한 상황에 부딪친 사람이라도 사람들과 나누는 교류나 사회의 지원이 유대나 연이 되어 삶의 희망과 존엄을 되찾는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의 맥락에서 말하면, 인권보장이나 구제조치와 같은 법제도와 함께 인권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의식 계발이 그 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부에서 언급한 인권교육영화는 인권침해의 피해자나 경우에 따라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연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차별로 고통받아온 한 소년은 학교에서 받은 인권교육을 계기로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웃에 사는 소녀가 강제로 약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년은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이라고 말하는 부모에게 ‘그것은 잘못입니다. 여자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열심히 호소한 결과, 결혼이 취소되어 소녀는 학교에 남게 되었습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의 경찰은 전 직원이 인권교육을 받고 수사와 체포 그리고 구금할 때 대응하는 자세를 개선한 결과, 인권침해 불만이 줄고 시민의 신뢰도 높아졌다.”

이 영화는 자신의 존엄과 타자의 존엄을 깨달음으로써 실감한 인권의식이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에 깃들어야 사회에 인권문화의 주춧돌이 착실하게 깔린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빈센트 하딩 박사는 나와 나는 대담집에서 맹우인 마틴 루터 킹 박사가 펼친 인권투쟁의 목적을 “단지 ‘부정이나 억압에 종지부를 찍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일’에 있었다.”고 지적했듯이, 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일이 인권문화를 건설하는 생명선이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10년’<sup>6</sup>을 바탕으로, 국제연합대학교가 추진한 활동에서 착안해 ‘인권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역 거점’ 제도를 유엔 차원에서 마련하자고 제안합니다.

현재 이와 같은 10년을 추진하고자 세계 101곳에 지역거점을 마련하고 대학이나 NGO 등이 협력해 지역 전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에도 같은 제도를 도입해 모범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지역뿐 아니라, 심각한 문제에 부닥쳤던 역사가 있으면서도 개선하려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대상에 넣어 ‘실제로 아픔을 많이 경험한 지역’만이 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지역에 최고의 희망과 격려가 될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본인이 실감한 것을 통해 전 세계에 인권문화를 키우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존엄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 어린이의 권리를 지키는 국내법을 각국에서 정비

### ‘아동 최우선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이어서 ‘인권문화 건설’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담당이 될 아동들을 둘러싼 상황을 개선하고자 모든 나라가 ‘아동권리협약’과 그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협약에 관련된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989년에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은 바야흐로 당사국이 193개국에 이르고, 유엔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권조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협약에 관련한 국내법을 각국이 충분히 정비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아동의 권리를 쉽게 무시하거나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sup>6</sup>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10년

유엔이 선포한 것으로 사람은 세계 여러 사람과 미래세대 그리고 환경과 관계성을 이루며 산다는 점을 인식하고, 행동을 변혁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유엔총회에서 의결하여 2005년부터 실시했다. 마지막 해인 2014년에는 일본에서 세계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10년 동안 추진한 사업을 결산한다.

이런 현실에서 특히 심각한 침해를 막고자 선택의정서를 제정했는데, 18세 미만 소년병사 금지나 어린이 인신매매 등에 관련한 두 가지 의정서에 추가로 2011년 12월에는 제3선택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저도 제언 등에서 이 중에 소년병사 금지를 반복해 주장했는데, 시에라리온에서 일어난 내전에서 소년병사로 종군(從軍)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활동하는 이스마엘 베아 씨가 한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베아 씨는 16세 때, 회의에 참석하고자 유엔을 방문해 ‘아동권리협약’을 처음 보고받은 충격을 “이 지식이 특히 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에서 온 아동들에게 우리 생명이 지닌 가치와 인간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고 말한 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나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풍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 조약에는 아동이나 젊은이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자유롭게 견해를 밝힐 권리와 온갖 매체를 통해 모든 중요한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아들이며 전달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들 덕분에 많은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베아 씨의 경험이 상징하듯 ‘아동권리협약’이 자기존엄성에 눈뜨는 원천이 되고,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희망의 의처(依處)가 될 수 있도록, 각국에서 협약을 지키는 기풍을 조성하고 사회 전체에 ‘아동 최우선 원칙’을 뿌리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풍 속에서 자란 젊은 세대가 사회를 짊어지고, 그들이 또 같은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소중하게 육성할 것입니다. 이 협약의 연원이 된 1924년의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전문(前文)에 “인류는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써어 있는데, 이 숭고한 맹세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는 흐름을 확립한다면 인권문화는 틀림없이 사회를 지탱하는 중추이 될 것입니다.

## 국교정상화 40주년에 고조된 긴장

마지막으로 ‘평화와 공생의 지구사회 건설’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긴장상태가 이어지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개선과 미래의 전망에 관해 제 견해를 말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중일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도 일찍이 볼 수 없던 긴장과 마찰이 고조되어, 중일 관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0주년의 의미를 담은 행사와 교류 계획을 잇따라 중지하거나 연기했고 경제 면에서도 관계가 크게 냉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일 관계의 미래를 결코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일우호는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비유처럼 양식 있는 선인(先人)들이 두 나라 사이에 가로놓인 단단한 암반을 한 방울 또 한 방울로 뚫으면서 열어왔기에, 오늘날까지 긴 세월 동안 견실하게 쌓아 올린 우호교류라는 유대의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일국교정상화를 제언했을 때(1968년 9월)는 중국과 일본의 우호를 입에 올리기도 꺼리는 분위기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보다 더 냉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웃 나라와 우호를 도모하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는 없고, 중일관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제 신념이었습니다.

제언을 발표하고 6년 뒤(1974년 12월), 베이징을 방문해 저우언라이 총리와 덩샤오핑 부총리를 뵈었을 때, 두 분이 ‘중국 인민뿐 아니라 일본의 민중도 일본 군국주의의 희생자’라는 생각을 품고 있음을 통감한 저는 ‘전쟁의 비극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민중과 민중 사이에 무너지지 않는 우의(友誼)의 다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축하겠다!’고 더욱 굳게 다짐했습니다.

### 결코 우호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저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우호교류를 추진하는 데 계속 정열을 쏟았습니다.

국교정상화 이후인 1975년, 저는 중국에서 온 첫 국비유학생 여섯 명의 신원보증인이 되어 그들을 소카(創價)대학교에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는 중국에서 연간 10만명의 유학생이 일본에 와서 공부하고, 일본 유학생 1만 5000명이 중국에서 공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와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를 비롯해 두 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맺은 349개 도시에 이르는 자매결연의 확대 그리고 쓰촨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으로 고난에 처했을 때 서로 도운 역사가 있어 여러 차례 긴장이 발생해도 우호의 물줄기는 지금까지 착실하게 수량을 늘렸습니다.

이 물줄기에 흘러든 한방울 한방울은 얼굴을 마주하는 ‘일대일 마음의 교류’로 형성된 우정의 결정(結晶)이기에, 어떤 시련이나 난국에 부딪쳐도 쉽게 마르는 것이 아니며, 이 물줄기를 결코 마르게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더욱 굳히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베이징대학교에서 강연(‘교육의 길, 문화의 다리나의 일고찰’, 1990년 5월)했을 때 “양국 사이에 어떠한 우여곡절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호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는 크든 작든 간에 물결이 이는 것이 역사의 상례입니다. 어쩌면 조용하고 잔잔할 때가 예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일평화우호조약에서 “무력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에 호소하지 않는다.”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한, 두 가지 서약을 어떤 국면에 처해도 끝까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이 원칙만 지켜갈 수 있다면 비록 시간은 걸리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오히려 순조로울 때보다도 역경에 처했을 때가 더 본격적으로 두 나라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동아시아환경협력기구를 설립 청년이 힘을 합해 행동하는 시대를

### 흥금을 터놓은 대화를 끈기 있게

그러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평화우호조약의 두 가지 서약을 지켜갈 것을 재확인한 상태에서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위급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요청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먼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동결’하는 데 합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를 지속하면서 이번 대립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재검토하고, 서로의 행동이 상대측에 어떻게 비치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냉정히 분석해 앞으로의 위기를 피할 규칙을 만드는 데 전념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대화과정에서 격렬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경우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각오하고 마주하지 않으면 두 나라의 관계 회복은 고사하고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도 멀어질 뿐입니다.

돌이켜 보면 냉전이 종결되고 얼마 안 된 무렵,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뵈었을 때(1990년 7월) 저는 입을 열자마자 “오늘은 대통령과 싸우러 왔습니다. 불꽃을 튀기며 무엇이든 솔직하게 대화합시다. 인류를 위해, 일소(日蘇)를 위해!”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일소관계가 불투명하지만 ‘의례적인 회견으로 끝내지 않고 진심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냉엄할수록 흥금을 터놓고 대화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평화공존을 지향한다는 대전제 아래, 불꽃이 튀기듯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는 서로의 주장에 잠재한 ‘상대가 어떤 것을 걱정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심정을 뚜렷이 드러내게 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그 점에 바탕을 두고 정기적인 중일정상회담 개최를 제도화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달(2013년 1월)로 프랑스와 독일이 ‘엘리제조약’을 조인한 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여러 차례 싸운 역사가 있지만, 정례 정상회의를 연(年) 2회, 외무와 국방 그리고 교육 각료의 정례회의를 연 4회 열기로 한 조약 덕분에 관계가 크게 긴밀해졌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일찍이 없던 난국에 부딪친 지금이 바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어떤 상황에서도 두 나라의 정상이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은 2015년을 목표로 ‘평화공존’과 ‘인류의 이익을 위한 행동의 연대’를 기축으로 새로운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구상 중 하나로, 예를 들면 중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주도해 ‘동아시아환경협력기구’ 설립을 목표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환경개선은 양쪽 모두에게 ‘공통의 이익’이 됩니다.

저는 이 기구의 활동으로 중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함께 행동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를 창출하기 위해 두 나라가 함께 공헌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5년 전(1968년 9월), 저는 국교정상화제언에서 “일본의 청년과 중국의 청년이 서로 손을 맞잡고 밝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서로 웃음을 나누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토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교류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져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초점은 청년의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다진 우호의 토대를 어떻게 구체적인 협력으로 발전시키느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하나 또 하나 개척하고 정비해야 하고, 이런 도전을 거듭하다 보면 중일우호의 유대는 자손만대에 계승되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마키구치 초대 회장이 통찰한 사회관

지금까지 2030년을 향한 전망과 행동목표에 관해 논했는데 ‘평화와 공생의 지구사회 건설’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민중의 연대입니다.

창가학회의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郎) 초대 회장은 저서 ‘창가교육학체계’에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일어난 사람들 대부분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왜 좌절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이렇게 고찰했습니다.

“선인(善人)은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강한 박해를 받는데, 다른 선인들은 이를 보고 내심 동정은 하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실력이 없다고 여겨 방관해버리기 때문에 선인이 패하게 된다.”

즉 박해를 받는 선인을 동정하기는 해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 그들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해

최종적으로 방관해버린다는 말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 '삶의 방식'의 저류에 '단순한 자기생존'의 의식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의 원소는 되지만 결합력이 될 수 없고, 분해를 막아내는 힘도 될 수 없다."고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마키구치 초대 회장은 이 비극의 유전(流轉)을 단절하고자 도다 제2대 회장과 창가학회를 창립하고 '단순한 자기생존'이 아닌 '자타(自他) 함께 생명존엄'을 바라며 행동하는 민중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고자 일어섰습니다.

현재 그 민중의 연대는 192개국에 넓혀졌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데 큰 마디가 될 2030년은 창가학회 창립 100주년에도 해당합니다.

우리 SGI는 2030년을 향한 '평화와 공생의 지구사회 건설'이라는 전망을 공유한 사람들 그리고 단체와 힘을 합해 세계적인 민중연대를 거듭 넓혀가고자 합니다.

### 참고문헌

1. '파우스트와 호문쿨루스' 만프레트 오스텐, 이시와라 아에카 옮김, 게이오기주쿠대학교출판회
2. '가속하는 시간 혹은 인간의 자기파괴' 야마사키 타쓰야 옮김, '동양학술연구' 제44권 제1호
3. '괴테와의 대화(상)' 에커만, 가메오 에이시로 옮김, 이와나미서점. 현대표기로 개정
4. '21세기를 여는 대화' '이케다 다이사쿠 전집 3권' 수록
5. '평등사회' 사카이 다이스케 옮김, 동양경제신보사
6. '고타마 붓다1' '나카무라 하지메 선집 결정판 제11권' 수록, 순주사
7. '대당서역기' 현장 저, 미즈타니 신조 옮김, '중국고전문학대계22' 수록, 헤이본사
8. <울장대품>에서 취의
9. '붓다의 말씀' 나카무라 하지메 옮김, 이와나미서점
10. '케어의 본질' 다무라 마코토·고우노 노부유키 옮김, 유미루출판
11. '붓다의 진리의 말씀 감흥의 말씀' 나카무라 하지메 옮김, 이와나미서점

12. <잡보장경>에서 취의
13. '정체성과 폭력' 다이몬 다케시 감역, 도고 에리카 옮김, 게이소쇼보
14.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 아베 히토시 옮김, 지쿠마쇼보
15. '지구시민 교육에 대한 고찰', 1996년 6월
16. '속도와 정치' 이치다 요시히코 옮김, 헤이본사
17. '자살로 향하는 세계' 아오야마 마사루·다가 겐타로 옮김, NTT출판
18. '도다 조세이 전집 제4권' 도다 조세이 저, 세이쿄신문사
19.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 아베 히토시 옮김, 지쿠마쇼보
20. 2010년 8월 와세다대학교에서의 강연, 유엔홍보센터 홈페이지
21. '이어북 핵군축·평화2012'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감수, 피스디포
22. 피스 디포(Peace Depot) '핵무기·핵실험모니터' 제398호
23. 피스 디포(Peace Depot) '핵무기·핵실험모니터' 제4012호
24. '국가와 인종편견' 폴 고든 로렌 저, 오쿠라 유노스케 옮김, TBS브리태니커
25. '빈곤 없는 세계를 만들다' 이노쿠마 히로코, 하야카와쇼보
26. ILO주일사무소 홈페이지
27. '희망의 교육 평화의 행진' 제삼문명사
28. '세계아동백서 특별판 2010' 일본유니세프협회
29. '교육의 길 문화의 다리나의 일고찰' 1990년 5월
30.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전집 제6권' 제삼문명사. 현대 표기로 개정